



가톨릭 안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제310호 2024년 12월 8일(다해)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창세 1,31)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표범(*Panthera pardus orientalis*)

제1독서 바룩서 5,1-9

화답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필리피서 1,4-6.8-1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굳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3,1-6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 홍보·전산
오픈카톡

“메워지고 낮아져라.”

농은수련원 원장
박지훈 디모테오 신부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을 따라 등산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거주하던 지역 근처의 산부터 조금은 거리가 있던 산까지 국내의 이러저러한 산들을 오르는 여정. 사실, 그 시절 저는 사람들이 그런 산을 오른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컷 올랐다가 내려올 것이 뻔하고, 다음날이면 하반신 전체가 짜릿짜릿한 충격에 시달릴 것이 뻔한데 왜 굳이 그렇게 산을 오르는지 쉽사리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산행을 조금씩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느끼지 못했던 감정과 그 시절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흘리는 땀방울이 식어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상쾌함과 무엇인가 힘든 일을 이루었다는 성취감, 그리고 산을 오르면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자연과 오로지 산 위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드넓은 풍광이 바로 제가 산을 조금 좋아할 수 있게 만든 요소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등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약간의 고통을 요구하긴 합니다. 여전히 산행은 고되고, 산행이 끝나고 나면 하반신은 육신거리곤 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세례자 요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죄의 용서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요한, 루카 복음사가는 이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루카 3,5)라고 했던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어 나간 사람이라 설명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높아진다.”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높은 곳들이 모두 사라지고, 낮아진 곳이 모두 높아져 온 땅이

평지를 이룬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산을 오르는 행위를 통해 이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오를 “높은 곳”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렇게 높은 곳을 오를 일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껏 그 높은 곳에서 느꼈던 감정과 광경들은 힘들이지 않고 마주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높아지는 일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 속 요한은 이 일을 “회개”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와 하느님 사이, 우리와 이웃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감정의 골을 메워 나갈 때, 드높은 권능을 포기하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힘들이지 않고 마주 볼 수 있고, 그런 예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자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하느님의 영광과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곧 차별과 혐오, 반목과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로 쌓아 올려진 사회적 벽들을 허물어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찾아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쌓아 올린 벽과 깊게 판 골들은 나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마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주세요 <표범>

표지 사진 설명



표범의 몸은 길고 늘씬하며 다리는 비교적 짧습니다. 또 귀는 짧고 둥글며 몸길이 절반 정도의 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고산지대의 산림 속에 살며 노루, 토끼, 오소리 등을 잡아먹습니다. 표범은 한반도, 러시아, 만주를 비롯한 극동지역에 널리 분포했으며 특히 한반도에는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에 분포되었다고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1940년대 일제강점기 때 해수 구제 사업으로 급감하였으며 현재는 절멸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밀한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붙은 표범은 인내와 신중과 민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감을 공격하기 전에 몇 시간이나 그 자리에 머물면서 신중하게 공격할 때를 기다립니다. 의미는 다르지만 신중함은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교회 지도자의 자격은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티토에게 알려줍니다. 성당 일을 맡아 봉사하는 동안 나는 신중한 사람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의성본당-정규석 프란치스코

※ 2024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의 일환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에 대해 다룹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참고하여 목상글을 담습니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1코린 12,19)

제43회 인권 주일,
제14회 사회 교리
주간 담화

지난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3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잃은 23명 가운데 18명은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일하며 꿈을 키웠지만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하였습니다. [...] 한마디로 이번 참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힘들고 위험한 일을 파견, 또는 하청 업체 노동자에게 맡기는 그릇된 관행,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인간적 기업 경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이렇듯 위험한 일이 ‘더욱더 약한 노동자’에게 내려가는 이유는 이윤의 극대화를 최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탐욕 문화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 안에서는 인간의 존엄은 부정되고 가치 기준은 “효율성, 가능성, 유용성”(「생명의 복음」, 23항)으로 대체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배척되고 소외되며, 특히 힘없는 노동자는 “그냥 버리는 소모품”(「복음의 기쁨」, 53항)이 되어 버립니다. [...]

그들은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초대한 손님’이자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법과 제도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 그들은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1코린, 12,21) 하며 차별하고 배제할 수 없는, 결코 그렇게 하여서도 안 되는 ‘우리과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 우리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아픈 것처럼, 그들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1코린 12,23-26 참조). “외국인, 내국인 따지지 말고 다 같은 인간입니다. 차별 없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봐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유가족의 절규는 우리의 절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체가 건강할 때 몸은 건강합니다. 우리 사회의 한 지체인 이주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도 건강하지도 않다는 증거입니다.

[...] 세상과 이주 노동자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는 교회와 우리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입니다(사목 헌장, 1항 참조). 이번 인권 주일과 사회 교리 주간에는 특별히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나 외면받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사회적 참사와 구조적 불의에 무관심한 나머지 “이 모든 것이 마치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지 우리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복음의 기쁨」, 54항)하였던 우리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한 우리의 편견과 혐오 그리고 차별과 우월감을 던져 버리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마태 23,8)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진정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환대, 보호, 증진과 통합의 시간’(「모든 형제들」, 129항 참조)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아리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며,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고향을 떠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이주 노동자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 교육영상

2024년 12월 8일 대림 제2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 선 태 주교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아름다운 자연과 삶



북면성당 장주경 베네딕도

‘정의와 공정’의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에게 공평하게 은총을 베푸시어 이 세상 그 무엇도 평안함을 누린다.

- 참고 기다리면 언제나 좋은 날이 온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신앙 -

가톨릭 안동 교구 알림

2025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5.1.1.부터 받는 기부금 분(分)부터 수기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2025.1.1.부터 받는 기부금 분(分)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 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와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본당신부께 제출하며 신분증과 함께 대조확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인회 · 미술가회 사목방문

11월 28일(목)에 교구청에서 <문인회 · 미술가회 사목방문>이 있었습니다.



오정형 · 함원식 신부님 은경축

< 오정형 세례자 요한, 함원식 이사야 신부님 은경축을 축하드립니다! >

12월 1일(주일) 점촌성당(오정형 세례자 요한)과 갈전성당(함원식 이사야)에서 교중미사 시간과 후에 은경축 축하행사가 있었습니다. 두분 주교님과 여러 손님 신부님들께서 오셔서 미사를 함께 집전해 주셨으며, 주임 신부님 가족들, 사목하셨던 성당 신자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두 분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훌륭한 사제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천대현 콘스탄티노(점촌)



© 김용구 대건 안드레아(갈전)

안동신협

가톨릭과 함께하는 서민은행
정기예금 3.3% (1년)
안동시 태사2길 28(안동의료원앞)
T.054-859-1710

영주 독일 보청기

노인성 난청 전문
김 성 문 (스테파노)
영주시 구성로 333
(신호동 오거리 성누가병원 옆)
T.054-635-2498, 010-3693-7684

서울 프라임 치과

임플란트 · 교정 · 보철치료 · 치주질환
원장 김재권 미카엘
안동시 옥동사거리
T.054-859-2879

서민 식육 식당

등심, 갈비, 차돌박이, 양지, 불고기, 삼겹살, 목살
점심특선: 주물럭, 불고기, 육회 비빔밥, 곰탕
전국 택배 가능
이택규 (마티아)
예천군 호명면 양지3길 21 (호명초 앞)
T.051-655-4994, 010-9494-4074

문경새재 임꺽정가든

40년 전통 손두부전문 농이버섯 한우두부전골
홍창식 안셀로 박순분 안젤라
문경읍 새재로 870번지
T.054-571-2285, 054-572-0027

안동 우리농

www.andongfood.net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며 모두를 살리는
생명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T.054-843-0128

(주)이우텍

디지털문화 콘텐츠 전문기업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 · 유지보수
홈페이지: www.iwootec.com
T.054-843-5700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 다미안 의원

피부질환, 레이저콜리닉, 보톡스
(수익금은 사회복지회를 위해 사용합니다.)
영주시 봉화로 2(상망동)
T.054-633-6762



성진사우나

대표 김용숙 스텔라
송우근 바오로
문경시 중앙로 212
T.054-553-0059

아름다운얼굴피부과의원

피부질환, 피부미용, 보톡스, 필러,
레이저, 여드름, 아토피, 탈모, 비만,
검버섯, 점, 제모
피부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중원 요셉
T. 054-553-2079

대게 좋은날

대게, 회 식당 및 숙박운영
대게, 킹크랩, 랍스타, 찜&코스 요리, 회, 물회
다양한 메뉴, 맛있고 입이 즐거운 여행! 숙박까지
이복도 요셉, 김경숙 마리아
010-2520-1926
영덕군 강구면 강구대게길 37
T.054-732-8357

주보 광고모집

1. 주보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1회 3만원,
[타 교구] 1회 5만원

2. 단체 알림 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4줄 무료(제목 포함)
[타 교구] 1줄당 5천원(제목 포함)

문 의: 사목국

054-858-3114~5
sa3119@nate.com

영덕상회

동광어시장 내 1호, 2호. 각종건어물
신천옥 바오로, 최정혜 데레사
영덕군 강구면 대게로 108-1
전국 택배
T.010-3453-0205

안동제일안과

백내장, 녹내장, 망막, 안성형, 드림렌즈
원장 정재엽 토마 / 원장 서의태 임마누엘
안동시 대안로 107 신시장 태평양약국 2층
T.054-855-7582~3

한국금거래소 상주점

골드바, 실버바 / 선물용 / 순금기념품
믿을수있는순도, 최고가 고금매입
신숙조 요안나
상주시 상산로 277
T.054-536-5000







교구장 동정



12월 9일 주교 영성 모임(~10)
12월 13일 안동시종합사회
복지관 감사의날
12월 15일 예신 종강 미사

축하합니다

서품축일

12월 10일 김한모 바오로 신부

교 구

사목국 공소탐방

일 시: 12. 8(주일) 10:00
장 소: 문경본당 정리공소

느티나무어린이

메리크리스마스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

지도교수: 구명림 수녀
일 시: 12. 15(주일) 13:30
장 소: 갈전마리아 본당

2024년 예비신학생 모임 종강미사

일 시: 12. 15(주일) 14:00~ 17:00
(종강미사 15:00, 주교님 주례)
장 소: 교구청 강당
대 상: 예비신학생, 예비신학생 부모, 대신학생

2025년도 초등부 복사단 연수

일 시: 1. 7(화) 14:00~ 1. 8(수) 16:00
장 소: 농은수련원
대 상: 첫영성체를 한 후 복사단 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어린이

제 단 체

가톨릭간호사회 총회일정

일 시: 12. 14(토) 10:00
장 소: 교구청 3층 대회의실

청년연합회 총회 및 친교의 날

일 시: 12. 29(주일) 12:00~ 19:00
장 소: 계림동성당 및 상주지구 탐방
*교구 내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남성 제47차 꾸르실료

기 간: 1.9(목) 15:00~ 12(주일) 17:00 [3박 4일]
장 소: 농은수련원
참가비: 1인당 160,000원
추천 인원: 각 본당 2명 이내
접수 기간: 12. 23(월)까지
신청 자격: 영세 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를 받은 분(신청서 참조)
신청처: 본당 신부님, 꾸르실료 간사

수 도 회 · 피 정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1월 개강, 각 6-8주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중세)
- 이진현 신부
고대 그리스의 시간과 그리스도교 신학
- 김민철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모세의 삶과 신앙
- 주원준 박사
구약으로 만나는 하느님의 여러 얼굴들
- 김민 신부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 번째 길
- 최지원 수녀
명화로 만나는 그리스도교 영성
- 박혜원 강사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신 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 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 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 서: <https://uus.pauline.or.kr/> 1.31(금) 마감
문 의: 02-944-0819~ 23, 010-5584-8945

상주가르멜 성소모임

고독과 침묵 안에서 기도의 사도직에
부름받은, 봉쇄 관상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장 소: 상주시 내서면 우서로 80-21
연락처: 010-3502-0507 (08:00~ 17:00)

금요철야 기도

일 시: 매 주 금요일, 20:00~ (토)01:00
강 사: 한연흠 신부, 김용렬 신부 외
진 행: 고영민 안드레아(찬양팀)
장 소: 초정성령회관
문 의: 043-213-9103/ 010-5482-6744

기 타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일 정: 2. 8(토)~ 2. 19(수)
성모발현지(아시아나)/ 545만원
3. 7(금)~ 3. 18(화)
2025년 희년 이탈리아/ 560만원
3. 9(일)~ 3. 20(목)
파티마,스페인,루르드/ 460만원
3. 11(화)~ 3. 21(금)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문 의: 02-2281-9070 www.cttour.org

안동교구사회복지회 금성카리타스요양원

대 상: 장기요양등급판정 어르신
주 소: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2404
입소 문의: 054-832-6400

교 육

가톨릭상지대학교

2024년 가톨릭상지대학교 겨울학기 평생직업교육과정 모집

신청기간: 11. 18(월)~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lead.csj.ac.kr 접속 후 신청
총 23가지 수강료 할인 유형(최대 100%
환급 가능/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신청문의: HIVE센터(851-3007-8/lead.csj.ac.kr)

생성형 AI 활용 과정 무료 교육

일 정: 12. 21(토), 28(토)/ 12. 22(일), 29(일)
(각 2일 8시간)
시 간: 09:00~ 13:00
내 용: 생성형 AI(ChatGPT 등) 활용하기
(SNS마케팅, 동영상, 이미지, PPT제작 등)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6

가흥동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영양 고춧가루 판매

보통맛: 1kg-38,000원, 매운맛: 1kg- 39,000원
고추장용 보통맛: 1kg- 40,000원
매운맛: 1kg- 41,000원
주문 전화: 010-3813-4405

가흥동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유기농 100% 레몬착즙 판매

한 포에 100%이태리산 유기농 레몬이 하나
가 격: 1통 10,000원, 3통부터 한통당 천원 할인!
주문전화: 010-8962-9600

